

철학사

20 아우구스티누스와 신플라톤 주의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오늘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시간 말미에, 제가 철학사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철학사의 철학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제가 보기에는 서양 사상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세계관 전통들이 평행선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사상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고대와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 즉 르네상스 시대와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 및 포스트모던 사상으로의 전환기(1800년에서 1900년경)가 그것입니다. 낭만주의, 르네상스, 정확히는 1400년에서 1500년경이 그 시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세 주요 시기의 특징이 변화하는 과학적 모델, 또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도 불리는 것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과학은 형태, 본질, 물질의 관점에서 설명을 강조했고, 과학 혁명 이후에는 물질과 운동의 관점에서 기계론적 과학이 등장했으며, 19세기에는 자연에 대한 보다 유기적인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생물학에서는 발생론과 생물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고, 20세기 물리학에서는 장 이론, 전자기장 이론, 시공간 상대성 이론 등이 있지만, 이 또한 관계 지향적인 시스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본질, 고정된 본질 또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여기서 기계론적 모델을, 그리고 여기서 관계적 또는 유기적 통일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연주의 철학이든, 관념론 철학이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유래한 유신론적 철학이든, 이 모든 철학들이 그 시기에는 동일한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기계론적 모델 등을 활용 해야 하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본질에 대한 연구를 멈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로는 덜 두드러지게 이어지는 철학적 관점 하나,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어 그 이후로는 덜 두드러지게 이어지는 또 다른 관점,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시작되어 강세를 보이는 또 다른 관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계관 전통 안에서 병행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철학자들이 플루토,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리스 형상론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데카르트와 같은 기계론적 개념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세기 기독교 철학자들은 보다 유기적인 개념들을 다루었습니다. 헤겔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만, 이는 '기독교인'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약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인 역사를 이어온 다양한 세계관 전통들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현재의 문화적 자연 이해가 제공하는 개념적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문화적 자연 이해는 그리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플라톤주의가 두드러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이르러 다시 부상하겠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중기 플라톤주의가, 그리고 이후 신플라톤주의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중세 초 서양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압도적으로 플라톤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주의라고 하면 신플라톤주의를 의미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교 철학 전체를 완전히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시작하여 중세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의도와 태도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 체계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학 등과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 상당한 철학적 변화를 가해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변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중기 플라톤주의를 통해 영지주의의 이원론과 물질을 악으로 보는 영지주의적 관점에 내재된 악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플라톤주의 덕분에 그들은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형상들 덕분에 물질 세계는 악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외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세상을 떠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며, 철학적 문제뿐 아니라 신학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사상을 체계적으로 펼친 최초의 사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서양에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동방 교회에 중요한 사상가들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카파도키아 교부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흑해 지역의 다른 교부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방 교회보다 더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동방 교회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여섯 명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끔씩 그렇게 하기도 하죠. 제가 전에 "국가론"을 읽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 목록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도 추가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영감을 주는 고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자서전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 영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논문입니다.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즐거리를 읽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처음 읽을 때 하는 일이 바로 그거겠죠. 저는 '선과 오토바이 관리술'을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 책 기억나세요? 전 그 책을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여행기 때문에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를 여행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어머니와 이교도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가 어린 시절 마니교 이원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마니교는 4세기경에 등장한 영지주의의 한 형태로, 다른 여러 영지주의 종파보다 더욱 명확하게 이원론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니교는 영원한 두 영역, 즉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을 존재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합니다. 빛은 이성의 빛입니다.

어둠, 혼란스러운 물질적 존재의 세계. 그리고 그것은 조로아스터교, 즉 지금의 파르시교도들의 종교에 뿌리를 둔 이원론의 한 형태였지만, 기독교적인 걸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의 영원한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빛의 왕국이 그의 아들을 어둠의 세계로 보냈을 때, 빛은 붙잡혀 육체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적인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육체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내몰린 그의 육체는 결국 현상적이고 환상적이며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희생자는 말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악, 즉 육체를 이겨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함의는 만약 육체가 악하다면, 구원의 길은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부정과 금욕적인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상대적인 방탕함을 떠올리며 악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니교 순회 강연자들을 만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답변 능력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니교 이원론에서 발견한 문제는 선과 악이 영원한 갈등 속에 갇혀 있다면 선이 악을 이길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결국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영원한 갈등 속의 단순한 꼭두각시로 전락시킨다는 것. 스태틱은 그 두 가지 결과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카르네아데스 와 그의 오류가능론 같은 학문적 회의론자들의 회의주의에 매료되었던 시기 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그에게 신플라톤주의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이원론을 넘어 일관된 기독교 유신론으로 나아가는 사고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그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플라톤주의의 어떤 점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가 신플라톤주의에 빚진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시』 8권에 있는 자료를 보면 그가 왜 플라톤과 플라톤주의를 그토록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꼭 읽어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책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가 플라톤주의에서 얻은 것은 첫째, 신은 스토아학과와 마니교가 주장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 즉 절반만이 아니라 전부의 근원이며, 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록』 첫 페이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오 신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의 근원이자 목적이며 선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려 한다는 내적 목적론을 보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신플라톤주의 전통에서 악은 선의 결핍, 왜곡, 타락입니다. 마니교에서처럼 악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악은 선에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 또한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신이 비물질적인 영일 수 있다면, 인간의 영혼 또한 비물질적인 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롭게도 영혼이 분배하고, 되찾고,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변증법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혼은 그 기능상 육체적 입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사유를 통해 광활한 시공간, 기억 속의 시간, 상상 속의 공간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네, 영혼은 육체와 달리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혼이 비물질적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플라톤주의에 대한 영향이 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플라톤이 강조하는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신플라톤주의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플라톤주의 체계에서, 영혼이 저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육체에 갇히게 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는 영혼의 중간 단계, 즉 지성이 존재하는 제3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지성은 우리를 고귀한 것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사랑 이야기에는 호감을 가졌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지성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근원은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몇 가지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 사랑을 강조한 결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기독교 윤리를 사랑의 윤리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라틴어에서 에로스뿐 아니라 신약성경의 아가페, 즉 우리말 자선(charity)에 해당하는 카리타스를 사용하여 사랑의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윤리의 중심 주제는 모든 도덕률의 근본적인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약성경에서처럼 십계명만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덕들, 즉 절제, 용기, 지혜,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사랑이 바로 이러한 미덕들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용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다른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고, 정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랑은 이러한 다양한 미덕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음, 그가 신플라톤주의에서 발견하는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플라톤에 대해 생각해 오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신플라톤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플라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방법 에 관한 두 가지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악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그는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악, 인간 영혼 속의 악은 육체가 우리를 어떤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행하는 악은 자유 의지의 선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의지론적 설명, 즉 자유의지에 대한 의지론적 설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는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은 더 높은 선을 목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이 육체의 굴레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사상에서 널리 퍼져 있던 관점보다 더 고상한 육체관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육체를 악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들이 형상에 따라 질서 지어진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적어도 그는 육체적인 관계는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로마 정치가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지만,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건강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고, 먹는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에서는 신플라톤주의자들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백록』에서 그는 자신이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먹기 위해 사는 것과 살기 위해 먹는 것의 차이를 탐구하며, 자신이 살기 위해 먹기보다는 먹기 위해 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생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이유는 육체가 우리를 사로잡고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초기 저작들에 대한 철회문을 쓰면서 그는 육체적인 것들의 긍정적인 가치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음악과 수학을 이해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는데, 이는 단순히 정신 수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신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선물로서 우리가 지상의 창조물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우리 삶에서 상위와 하위를 가르치는 결정적인 중간 단계는 지성이 아니라 의지, 즉 자유로운 선택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선과 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감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다.

힘이 앎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알아차렸고, 저도 당신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 쓴 논문들을 통해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성애에 의해 지배받는다, 도덕적 삶에서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해석 중에는 편향되고 잘못된 해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석들은 무엇이 선 한지 알면 저절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음, 저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처럼 자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두 사상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 철학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의지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함의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차이점은, 아, 그런데 첫 번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혼의 향상에 대한 플라톤의 관심을 공유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플라톤이 그랬듯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영혼의 향상에 대한 플라톤의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아주 많아요. 같은 맥락이죠.

사실, 그는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플라톤의 모든 철학적 희망을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만약 플라톤이 오늘날 기독교인이었다면, 아니, 다시 말해 플라톤이 서기 400년에 살아 있었다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의 철학이 그 방향으로 매우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또 다른 부분은 신플라톤주의의 발산 개념입니다.

하나 안에는 내적인 결정론이 있어서, 마치 그 자체의 존재 안에서 올라미 와 세계의 영혼, 그리고 다른 매개체들뿐 아니라 세계의 영혼에서 나오는 유한한 영혼들, 그리고 그 하나로부터 발산되는 모든 것들을 내뿜는다는 것 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점에 의문을 품었고,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범신론과 유신론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 결과로 보는 범신론 과, 무에서 창조된 것으로 보는 유신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발산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그의 발언 중 일부는 풍자적이고 수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리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그는 발산설이 옳다면 동물을 도살할 때 신의 일부가 도살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말썹꾸러기 아이가 벌을 받을 때, 신의 일부가 채찍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의 일부가 음란하고, 사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은 전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글쎄요, 플로티누스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굳이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는 신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부터 발산되어 존재의 결핍, 즉 형태의 결핍, 질서 있는 통일성의 결핍을 겪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식으로 악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개자라는 개념에 반대합니다. 중기 플라톤주의, 특히 초기 신피타고라스주의,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중기 플라톤주의의 알렉산드리아 필로에게서는 신, 유일신, 로고스 외에도 여러 중개자의 위계가 존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사적 존재들, 혹은 그 비슷한 존재들. 필로의 사상에서는 천사적 존재들 . 이교도적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에서는 다른 신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 중 일부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모든 매개체를 통해서만 역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독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육신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직접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 존재들과 발출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모든 중간 존재들이 위계질서상 자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들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라미는 유일신, 즉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세계 영혼은 올라미 , 즉 로고스 보다 열등합니다 .

그러니까 점점 더 열등한 존재들의 위계질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건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과 맞지 않아요. 삼위일체란,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비슷한 본질을 가졌지만 열등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우스 논쟁을 기억하시나요?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시에는 성자가 성부 와 이질적 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질적이라는 것은 본성 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은 비슷한 본성, 비슷한 본질, 즉 동질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질성(homoious)과 이질성(heterose)의 논쟁은 서로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때때로 '한 조각(iota)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오타 때문에 완전히 달라 졌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호모이우시오스)을 지니셨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 이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325.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로부터 75년 후에 글을 썼는데, 삼위일체 에 대해 쓰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미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15권이나 썼다. 15권의 책이 아니라, 아마도 두루마리 같은 것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위 존재를 매개로 하는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려고 애쓰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고 영원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칼케돈 신조, 그게 몇 년도였더라 ? 451년이었나? 아니면 453년이었나? 도무지 기억이 안 나네요 . 어쨌든.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 궁극적으로 신의 내면적 존재의 역동성, 즉 이성이 삶을 지배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본질에서 비롯되었다면, 인간의 이성은 신적 이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의 본질의 일부로 발현되었다면, 인간의 이성은 신적 이성의 유한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이성의 자기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즉, 이성과 계시, 그리고 권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질서는 존재 자체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사고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항상 권위가 먼저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 배우고 쌓아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든, 출처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식과 추론이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해, 현실의 본질상, 이 우주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신에 의해 창조된 질서 있고 이성적이며 이해 가능한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이 우선입니다. 신의 합리성, 즉 이성적인 우주 때문에 권위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 권위가 우리 피조물 안에서 이성보다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권위의 상호작용이 그의 인식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이해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해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 온갖 종류의 이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함의가 뒤따르죠. 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이란 질서의 상실, 질서 있는 통일성의 상실, 조화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 한, 악은 우리가 형식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것은 형식의 상실이며, 형식의 결핍이다.

사물의 본질적인 존재는 형상으로 측정되므로, 악은 어느 정도 본질적인 존재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물은 무에서 창조됩니다. 그리고 무에서 창조되었기에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과는 왜 썩을까요? XD님이 만드셨네요, 안녕하세요? 형태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악에 대해 그는 모든 자연적인 악과 인간의 성향이 우리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규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인의 용기뿐 아니라 믿음, 신뢰, 사랑, 희망을 인간 영혼의 근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영혼을 빚어내는 신정론이죠.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결합된 형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레나이우스도 그렇죠. 네. 그럼, 다음번에는 그가 형상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이 그의 인식론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영혼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좋습니다.

그는 왜 신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런 종류의 주제들이 그의 철학적 공헌의 일부입니다. 자, 선의 본질에 대해서는 1장을 보세요.

그보다 더 높은 선은 없으며,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따라서 참으로 영원하시고 참으로 불멸하십니다. 그분께 속한 것은 오직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만이 불변하신다면,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도 불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2장,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 모든 정신, 모든 육체가 본래 선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

모든 사람은 본래 선하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강조점이지만, 그는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로 이를 강조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 는 본래 선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 모든 영혼, 모든 육체는 영혼의 죄악과 육체의 필멸성에 의해 움직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그곳이다. 의지의 실패, 모든 정신의 쇠퇴, 그리고 육체의 필멸성. 선, 균형, 형태, 질서.

동의어 네 개. 동의어. 맞아, 다 같은 뜻이야.

동의어 순서는 확실히 더 높은 수준의 선을 따른다. 따라서 선의 정도는 형태, 질서, 통일성의 정도이다. 4장.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먼저 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악은 균형, 형태, 질서의 타락일 뿐입니다. 악은 선의 타락입니다. 그렇죠?

혹은 측정에 관해서. 그는 닭싸움을 관람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싸움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몸짓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한다. 8장 .

하찮은 것들의 부패와 파괴에서 우주의 아름다움이 탄생한다. 무(無)로 이루어진 나머지 것들, 즉 물질적인 것들은 분명히 이성적인 영혼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도 불행할 수도 없지만, 그 형태와 모습에 비례하여 선하며, 그보다 못한 선은 존재할 수 없다. 소멸과 재탄생의 순환, 즉 이 문단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덧없는 아름다움. 네, 오늘 아침 저는 집 서재 창밖으로 뒷마당의 단풍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잎들이 한창 떨어지고 있는 그 단풍나무 말이에요.

노란색, 오렌지색, 금색 등 다양한 색깔의 나뭇잎들이 얇게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나무에 달린 나뭇잎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죽음 속에서 자연의 질서가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태의 결핍 조차도 형태의 일부이고, 아름다움이라는 전체적인 질서의 일부인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오직 신만이 불변하시다.

오직 신만이 불변한다. 맞아, 우리 모두는 생분해되는 존재지, 한 명도 빠짐없이.